

**진료과안내**

내과/외과/정형외과/신경외과/신경과/안과/이비인후과/비뇨기과/치과/재활의학과/  
 산부인과/소아청소년과/가정의학과/정신건강의학과/직업환경의학과/응급의학과

**진료시간**

평일 오전 8:30~ 오후 5:30 **(응급실 24시간접수 및 진료)**

**대표전화**

통합 콜센터 **032-580-6000**



만성폐쇄성폐질환 바로알기

인천광역시의료원 호흡기내과장  
**진재용**



만성폐쇄성폐질환(이하 COPD)은 만성적으로  
 기도가 좁아지는 호흡기질환입니다. 기도가 좁  
 아져 숨쉬기가 어렵고 기침, 가래, 숨찬 증상을  
 호소하는 질병으로, 이 질환의 90% 이상은 흡  
 연과 관련이 있습니다.

이 질환은 다시 폐기종과 만성 기관지염, 만성  
 천식의 일부로 그 종류가 나뉘집니다. 천식과  
 COPD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, 천식은 ▲이  
 른 나이 ▲비흡연자 ▲천식이 일어날 때만 기  
 도가 좁아지는 등의 특징이 있지만 COPD는  
 ▲40세 이상 ▲흡연자 ▲항상 기도가 좁아지는  
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.

현재 국내 COPD의 발병과 사망률은 꾸준히 증  
 가 추세에 있고, 전 세계적으로도 폐암보다 사  
 망률이 높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폐 기능은  
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히 내려가는데 흡연  
 을 하는 경우엔 이를 가속화 시킵니다. 흡연은  
 폐 세포를 망가뜨려 염증을 유발하고 이 때문  
 에 폐기종이 발생합니다. 우선 폐기종은 작은  
 기도의 불규칙한 찌그러짐을 초래합니다. 또한  
 폐포의 탄성을 떨어뜨려 날숨에서의 공기 흐름

이 약해집니다. 이미 망가진 폐는 회복이 어렵  
 고, 자가 호흡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  
 문에 치료는 회복보다 악화를 막는 것을 우선  
 순위로 둡니다. 그만큼 예방과 조기발견이 중  
 요한 질병으로 볼 수 있습니다.

조기발견을 위해서는 정기적인 폐 기능 검사가  
 필요합니다. 10년 이상 흡연한 40세 이상이나  
 직업적으로 유해 기체에 노출이 많은 직업은  
 가진 사람은 고위험군으로 기침과 가래가 잦아  
 졌다면 바로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. 폐  
 기능 검사는 폐활량측정을 기본으로 하나 검사  
 가 가능한 병원에서는 폐 용적, 폐 확산능력을  
 측정하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되므로 가능하면  
 검사하는 것이 좋습니다.

급격히 늘어나는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예방하  
 고 싶다면 금연이 기본입니다. 금연은 COPD의  
 사망률을 줄이고 폐기능 감소를 늦추며, 가래  
 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호전시키기 때문입  
 니다. 불편한 숨쉬기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  
 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호흡기내과 전문의  
 를 찾아 정밀한 진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